



# 라면 같은 사람

유곡중 3-1 강준희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라면이라는 음식에 따라다니는 단어들이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부터 태어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엔 다 공감한다. 실제로 라면은 몸에 좋지 않다. 라면 측면을 둘러싼 포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게이지 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아는 식품 중 오직 라면에만 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며, 관용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칭하는 물질도 많이 들어 있다. 이렇듯 라면은 ‘몸에 나쁜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지 오래다. 언제부턴가 한 번씩, 날 잡아서 먹어야 하는 유혹의 대상으로 라면은 치부되곤 했다.

그럼 이렇게 만병의 근원인 라면을 왜 만들었을까. 답은 한국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식품회사의 사장은 전쟁 이후 너무나 빈곤해져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여행 당시에 본, 인스턴트 라멘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의 꿈을 이룰 공장 하나를 지을 돈도,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었다. 이런 까닭에,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자신의 의지와 명분뿐이었다. 그는 일본으로 가 당시 일본 라멘 1위 업체 사장을 만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인스턴트 라멘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라멘 공장을 지을 돈과, 제조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 즉 그냥 공짜로 주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라멘”이 탄생했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높은 영양을 주겠다는 그의 비전이 실현되었다. 즉 라멘은 건강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싼 가격에 좋은 맛과 많은 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한 ‘서민의 음식’이다. 그러다 보니 잘살게 된 최근에는 단지 욕망의 음식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라멘을 먹고, 매체에서 가난함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라멘이다.

현대 사회에서 라멘은 여유 있는 자들의 욕망을, 삶이 어려운 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 나는 이런 라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멘은 할머니가 끓이든, 내가 끓이든, 남자가 끓이든, 여자가 끓이든, 울산에서 끓이든, 서울에서 끓이든 맛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맛을 제공한다. 이렇듯 나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하고 싶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겐 좀 못되게, 내 친구들에겐 한없이 착하게 굴지 않을 원한다. 내가 상대에게 잘하지 않아도 상대는 내게 잘해주니까, 한 번 보고 말 사이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에게 공평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싶다. 라멘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라멘은 모두에

게 같은 맛을 주고 항상 내가 기대하던 예전 그대로의 맛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면은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이들에게 최고의 효용을 제공한다. 실익을 따진다면 천 몇백 원짜리 라면은 그리 남은 장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찍힌 부정적인 낙인에도 말이다. 나는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수군거림에도, 낮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꿈은 흉부외과 의사다. 돈을 벌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옳은 선택이나, 그것은 세상의 선망을 받으며 좀 사는, 높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의사라는 높은 사람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일한다면 낮은 사람들은 소외되기만 한다. 나부터 낮은 곳을 향해 일해야지 사회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배부르게 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라면 기업을 세운 것처럼, 나도 ‘진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

라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그 음식의 맛을 함께 먹으면 좋게 해준다. 흉부외과 의사는 몸 안, 중요한 장기들을 수술해 치료한다. 치료의 성과가 몸 외부에 바로 드러나는 타 진료과와 다르게, 흉부외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받은 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빛나게 한다. 나는 라면처럼, 나 자신은 별로 빛나지 않아도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도파민이 보상으로 분비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자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라면은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나의 정신적 이상향을 닮아 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어려운 이들에게 항상 같은 맛을 내는 라면. 라면은 누군가에겐 쥐도 안 먹는 음식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음식이다. 그래서 나는 라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단 한 명에게라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고마운 사람이 된다면, 나는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